



(주)뷰웁스 ‘무선 평판 엑스레이 디텍터’ 국내 첫 FDA 승인

뷰웁스(대표 김후식)가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무선 평판 엑스레이 디텍터 제품의 미국 식품 의약국(FDA) 승인을 획득했다. 엑스레이 디텍터는 투사된 엑스레이 영상을 디지털 정보로 바꿔 주는 장치다.

뷰웁스의 무선 평판 엑스레이 디텍터 ‘ViVIX’는 제품 두께의 슬림화 등 필름 스크린 카세트에서 요구하는 ISO4090 규격을 만족시켜 필름 및 CR(computed radiography) 방식의 엑스레이 촬영 장비를 최신의 DR(Digital Radiography)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또한 제품 자체에 무선 모듈이 탑재돼 있어 노트북과 ViVIX만 가지고도 촬영이 가능하다. 아울러 휴대가 간편해 촬영실뿐만 아니라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응급실, 중환자실 등으로 옮겨 즉시 촬영을 할 수 있다. 고성능 배터리가 내장돼 있어 병원으로 옮기기 어려운 환자의 촬영이나 이동 진료에도 제격이다.

이외에도 기존 제품 보다 빠른 6.5초 이내에 영상을 획득할 수 있으며, 국내는 물론 유럽, 미국, 일본, 캐나다 등 각국의 무선 규정을 충족해 해외에서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최근까지 FDA로부터 무선 평판 엑스레이 디텍터 관련 승인을 받은 기업은 캐논, 코니카 미놀타, 케어스트림 등 소수의 대형 업체에 불과했다. 뷰웁스가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FDA 승인을 받음에 따라 국내 무선 평판 X-Ray 디텍터 기술도 한 단계 올라서게 됐다는 회사측 설명이다.

뷰웁스 관계자는 “PC가 없어도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CR을 업그레이드 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근본적인 대체가 가능하다”며 “이번 FDA 승인에 따라 향후 미주 지역으로의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ViVIX는 FDA 외에 CE 인증, KFDA 승인도 이미 취득했다.



▶뷰웁스의 ‘ViVIX’